



즉시 배포용: 2022년 5월 19일

KATHY HOCHUL 주지사

**5 세에서 11 세 사이의 어린이를 위한 첫 번째 부스터샷 투여를 승인하는 CDC 결정에 대한 KATHY HOCHUL 주지사의 성명**

"오늘 질병 통제 예방센터(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, CDC)는 만 5 세에서 11 세 사이의 아이들을 위한 첫 번째 코로나 19 부스터샷 투여를 허가했습니다. 이번 발표는 미국 식품의약청(Food and Drug Administration, FDA)가 금주 초 발표한 내용에 이어 공개되었습니다. 또한 이후 뉴욕주 보건부(Department of Health, DOH) 일반 지침이 곧 발표될 것입니다.

뉴욕 전역의 학부모와 후견인은 코로나 19 로 인한 심각한 질병 발병을 막을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여름 휴가 시즌이 다가오는 가운데, 가을 학기를 위해 자녀를 코로나 19 로부터 보호하고 부스터 샷을 접종하는데 지금이 가장 적기입니다.

부스터 샷 접종은 의사의 권고 사항이고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, 안전합니다. 더욱 많은 뉴욕 주민이 생명을 살리는 수단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. 우리 자신을 보호할 때, 우리의 가족과 이웃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. 우리는 뉴욕에서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."

###

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: [www.governor.ny.gov](http://www.governor.ny.gov)  
뉴욕주 | Executive Chamber | [press.office@exec.ny.gov](mailto:press.office@exec.ny.gov) | 518.474.8418